

번호 22-2

제 목	국문	산후조리원의 운영현황과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postpartum care center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인영, 정 현, 김기경 <sup>1)</sup> 연세대 보건대학원,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간호학부 <sup>1)</sup>			
	영문	In Young Lee, Hyun Chung, Ki Kyoung Kim <sup>1)</sup>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Collage of Yonsei Wonju University <sup>1)</sup>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산욕기동안의 산모는 임신으로 변화된 신체의 회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적응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신생아의 경우에도 생존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변화와 생리적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서, 그 어느 시기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산욕기의 산모와 신생아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영업중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내용의 파악과 그에 따른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요구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산후조리원의 바른 정착과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우리나라 여성의 산후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며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과 질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여 연구참여에 동의한 산모로써 연구대상자 수는 총 81명이었다.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 산부인과의원에 우편발송하여 대상 산모에게 작성하게 한 방법, 산후조리원의 직원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는 등 총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연령층은 26-30세이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이유는 둘째출 사람이 없는 경우 30명 (37.0%), 산후조리를 잘하기 위한 경우 44명 (54.3%), 사람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답변한 경우가 5명 (6.2%), 신생아 육아에 자신이 없어서라고 답변한 경우가 2명 (2.5%)으로 조사되었다. 산후조리원 입소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동의한 경우 33명 (65.4%), 적극 동의한 경우 15명 (30.9%), 반대한 경우 3명 (3.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산후조리원 입소기간의 평균은 17.6일로 15-21일이 41명 (50.6%), 8-14일이 29명 (35.8%), 22일 이상이 6명 (7.4%), 7일 이하가 5명 (6.1%) 이었다. 이에 따른 대상자의 총 소요비용의 평균은 122.9 만원이며, 입소기간에 따라 소요비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에는 산모방(1인실)과 신생아실을 전부 갖추고 있으며 그밖에 식사조리실, 식당, 좌욕실, 휴게실, 샤워시설을 과반수 이상이 갖추고 있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분포를 보면 상근 의사가 있다가 4명 (4.9%), 없다가 40명 (49.4%)이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의사가 있다가 36명 (44.4%), 없다가 25명 (30.9%)이다. 간호사가 있다가 69명 (85.2%), 없다가 1명으로 (1.2%) 거의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 간호사가 있었으며, 간호보조원이 있다가 36명 (44.4%), 없다가 17명 (21.0%)으로 조사되었다.

산모와 신생아의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문항에서 환경적 서비스요구가 78명 (98.5%)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았으며,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요구, 정서·심리적인 서비스요구, 신체적 서비스요구, 교육에 대한 서비스요구의 순서로 나타났다. 산모의 서비스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순위를 보면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서비스만족도, 정서 심리적 서비스만족도, 교육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환경적 서비스만족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유사의료기관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76.5%, 숙박업소 (17.3%), 의료기관 5명 (6.2%)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던 산모의 산후조리원 재이용 의사는 61.7%의 산모가 재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4. 고찰

현재 산후조리원은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이나 설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법률규정이나 관할 행정관청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의 설문조사 자료와 문헌 연구 및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하여 산후조리원의 적정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25조), 산후조리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산후조리원의 성격을 산모들의 숙박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이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경우 산모 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많게는 40-50명, 작게는 15-20명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그 시설요건으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재해 대비시설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정비와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관할 행정기관(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셋째, 산후조리원을 개설하는 자와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자격 및 교육기준, 적정인원에 대한 기준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의 건강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산후조리원의 과잉광고 또는 의료기관을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시정하여야 한다.